

“돼지고기, 한·EU FTA 협상 최대 쟁점 부상”

“EU 양돈업 경쟁력 높아, 한·미 FTA 보다 국내 양돈산업 큰 피해 예상”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EU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가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EU FTA는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4차 협상에 이르고 있다.

EU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농산물 수출액(8,518억 달러) 가운데 약 10%인 841억 달러를 수출하여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EU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와 낙농품 등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EU, 세계최대의 농산물 생산 수출국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2004년도 기준 농산물 생산액이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FTA 체결시 미국보다도 더욱 막강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EU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체 농축산물 무역

수지 적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EU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 낙농품, 과일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아 한·EU FTA가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EU산 돼지고기(냉동 삼겹살)는 세계시장의 21.3%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 가격이 평균 3,548원/kg으로 국내산 7,782원/kg의 45% 수준에 불과하며, EU산 냉동 삼겹살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관세철폐시 국내 양돈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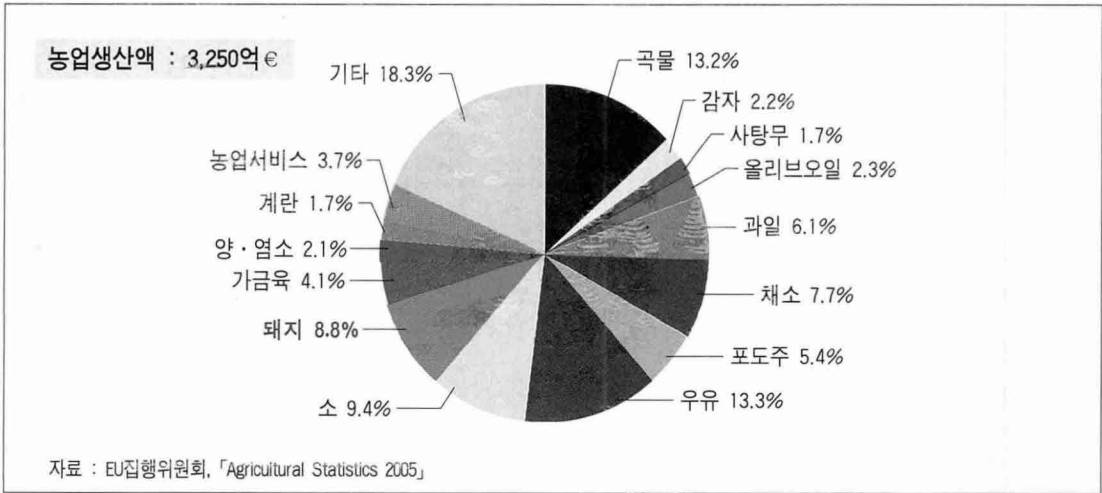
한·EU FTA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책 마련은 물론, 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미 FTA에 이어 돼지고기를 FTA 빅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양돈산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특히 EU의 경우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상당수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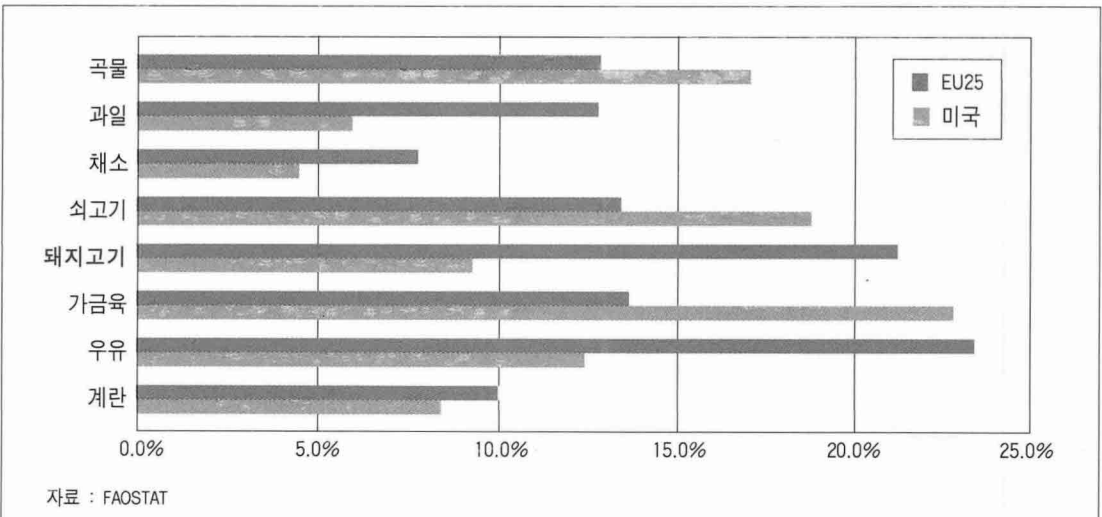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 냉동 삼겹살 시장에서 EU의 점유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장 점유율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 U	98.2	96.7	94.4	78.2	75.7	76.9
	칠 레	-	-	3.0	20.0	23.5	20.3
	미 국	0.3	0.4	0.2	0.6	0.2	0.8

<그림 1> EU의 농업생산구조(2004)



<그림 2> EU의 품목별 세계 생산 비중(2004)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은 2007년 1월 기준 27개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태리,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루마니아(07.1), 불가리아(07.1)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블럭이다.

2005년 EU 25개국의 역외 무역액은 세계 전체 무역에서 26.4%를 점유하여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18.8%, 일본 7.5%)